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2011. 6. 9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공일자	2011. 6. 8(수)	담당자	김대환 연구위원	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3775-9026	총 3매

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

: 건강보장은 민영의료보험, 소득보장은 국민연금 선호

보험연구원(원장 김대식)의 김대환 연구위원 및 최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소비자 수요 및 보험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「**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**」 보고서로 발표하였다.* 동 보고서는 보험소비자 수요 변화 추세와 보험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.

※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(제주 제외)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,200명(유효표본)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최대 허용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$\pm 2.83\%$ 이다.

최근 손해보험 보험가입률 증가세, 향후 저축성 보험 관심 지속 예상

설문조사 결과 전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.0%로 손해보험의 가입률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.6%p 증가하였다. 개인 보험가입률 측면에서도 손해보험의 가입률 증가로 인해 작년보다 0.4%p 증가한 92.5%를 기록하였다. 이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와 상해 및 질병을 중심으로 한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 결과로 해석된다.

가구 및 개인 보험가입률

(단위 : %)

구분		2009년	2010년	2011년
가구	생명보험	89.9	88.0	87.3
	손해보험	87.4	85.9	91.4
	전체	97.4	96.4	98.0
개인	생명보험	81.8	81.4	78.0
	손해보험	59.5	65.0	71.5
	전체	92.0	92.1	92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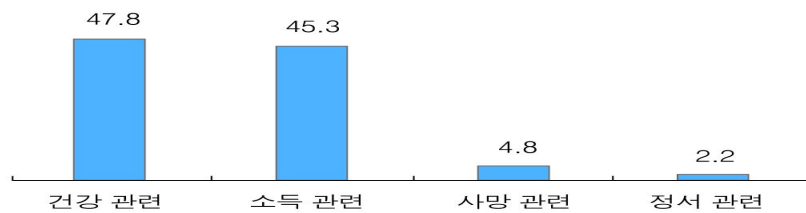
향후 1년 이내의 가입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'가입의향이 없다'는 응답 비중이 낮아져 **향후 잠재적인 보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** 나타났다. 특히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가입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저축성보험에 대한 높은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.

노후생활에 대한 건강 및 경제적 불안 요인 가장 커

노후생활에서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는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에 대한 불안(47.8%)과 소득감소 및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 불안(45.3%) 순으로 응답하여 고령화 이후 건강 및 경제적 측면의 불안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, 배우자 사망 및 본인의 장수 등 사망(4.8%)과 가족 및 사회와의 단절 등 정서(2.2%) 관련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낮게 나타났다.

노후생활 불안 요소

(N=1,200 / 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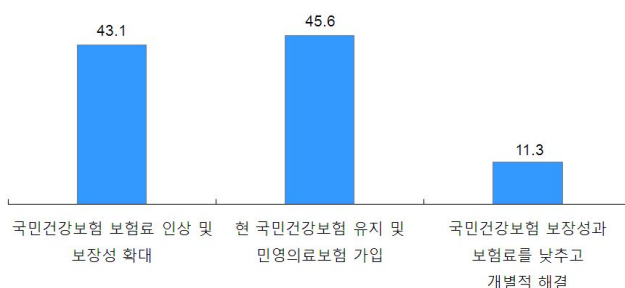


건강보장은 민영의료보험, 소득보장은 국민연금 선호

건강보장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(43.1%)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민영건강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(45.6%)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보험료를 낮추고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하는 방안(11.3%)을 선호하여,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,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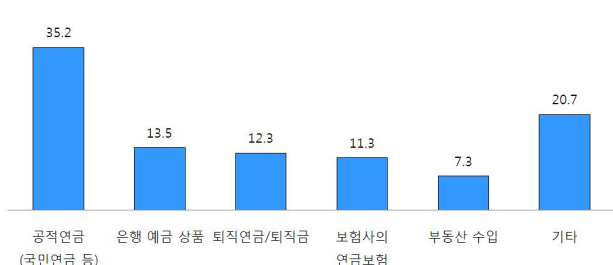
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

(N=1,200 / 단위 : %)



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방법

(N=1,200 / 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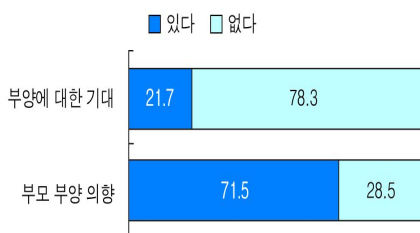


노후건강 및 소득보전을 위해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반면, 부모를 부양하려는 의향은 높아

노후에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자녀가 동거하면서 부양해줄 것에 대한 기대는 21.7%로 낮은 반면 부모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동거하면서 부양할 의향은 75.1%로 높게 나타났다. 또한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의향은 26.0%로 낮지만 부모님이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의향은 86.1%로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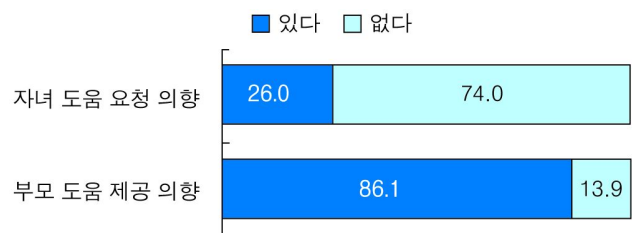
건강에 대한 부양 기대 및 부양 의향

(N=1,200 / 단위 : %)



소득에 대한 부양 기대 및 부양 의향

(N=1,200 / 단위 : %)



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“추가적인 설문조사에서 노후준비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10.3%로 낮고,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42.3%로 높게 나타났으며, 보통이라는 평가도 47.3%로 높아, 지금 당장은 자녀에 대한 의존 의향이 낮지만 이대로라면 이전 세대들처럼 향후 자녀의 도움 없이 건강 및 소득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”라며, “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후의 건강 및 소득보전을 위한 보험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며, 소비자들도 보험을 통한 자조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연에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※ 첨부 :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1부. 끝.